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16:5)에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을 보십시오.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는 조건으로 그의 계획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에 여러 가지 다른 계획들을 세웠지만 주님께서 그 계획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만일 주의 뜻이면 또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이라는 이 조건을 둡니다. 바울이 하기를 원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주께서 그것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의 처음 소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일 주께서 계획을 바꾸시면, 그는 그것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유연성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무를 것이라(8절). 이제 바울은 그의 계획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어날 문제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오순절인 6월 초순까지 거기 머물 계획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굉장한 소동이 일어날 것과 그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젠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변경을 가져오게 되었고 계획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바울이나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며 무고히 비난하고 있었고, 바울의 은혜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사실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일종의 자칭 사도입니다. 아무도 그를 안수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과 그의 사도직에 도전을 하고 있었고, 고린도 사람들의 삶 가운데 미치는 바울의 영향력을 손상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바울에게 참으로 애착이 남다른 곳이었습니니다. 바울이 거기 가서 기초를 닦고, 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가 거기 가서 고린도 교회의 구조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사람의 기초위에다 짓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바울을 뒤따라와서 그가 가르친 것들을 손상시키려하고 바울이 가르치는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는 우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율법의 멍에와 속박 아래 두기를 원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항상 바울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생들과 또 바울에 관하여 이런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는 자들과 논쟁하는 것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났고 또 물론 이런 일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수년 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전에 마술사로서 가장 높은 직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드루이드교의 열 셋 마술사 중 하나였다는 등등을 말하며 지역을 돌아다니며 주로 침례교회에서 연설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우리를 그의 비난의 대상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미국 전체에 라디오 사역을 막 시작했었고, 물론 테이프도 가르침이 나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성경 전체를 공부해 가는 일요일 저녁 공부의 테이프를 사용하여 미 전국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갈보리 채플로부터 매주 테이프를 받아서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수 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

가정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든 많은 모임들이 지금은 모두 미 전역에 있는 갈보리 채플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의 연설이 들은 테이프와 편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가 일루미나티(Illuminati, '광명회', 또는 '제3의 눈')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그 조직의 첩보원으로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자기가 드루이드교에 마술사들과 있었을 때, 록펠러가 그에게 7백만 달러를 주었는데, 그가 이 돈을 마라나타 유직(복음 성가단 이름)을 시작하도록 나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크리스천 록 음악으로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또 예수 운동을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테이프를 듣고 있었는데, 이 때에 그들은 이 사람의 테이프를 듣고 사람들은, 척 목사가 록펠러와 일루미나티에게 청탁 받아 젊은 크리스찬들을 타락시키려 한다니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테이프를 들으며, 그의 테이프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 공부는 사실상 중지되었고, 사람들은 나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한 거짓말쟁이였지만,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파사데나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을 때, 나의 아내가 일요일 저녁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롤드 피셔와 나의 형제와 다른 몇 사람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가 직접 스미스 목사에게 7백 만 불을 건네주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일어서서 말하기를, “존 토드, 그것은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고 당신은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척 스미스에게 7백 만 불을 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척 스미스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나는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황해 하며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그의 부 목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돈이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부 목사였던 로메인을 의심했었지만, 나는 그가 그 돈을 썼다는 아무런 증거도 여태껏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거짓말을 어떤 사람들은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에게도, 그들이 퍼뜨리는 이야기들로 인해 나쁜 영향을 주었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터넷에, 자기들의 페이지를 갖고 수천 명의 마음과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갈보리 채플에 피해를 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곳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손상시키려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들겠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 관하여 이러한 거짓말들이 들려지는 것으로 인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의 아픈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인해 고린도에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항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뒷등을 찌르는 일들로 인해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가르칠 그의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오늘날까지 뚜렷하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와 같이 뒷등을 찌르는 일들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 가운데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한 것들은 어떤 일이든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므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의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는 아픈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했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서신을 다음과 같이 시작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는 바울을 안수하여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 자신이 그를 임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문제가 일어나자 바울은 떠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는 그의 생명의 위협으로 서둘러 떠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는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는 고린도로부터 소식을 갖고 올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첫 번째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고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일종의 엄한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그의 편지를 받아들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잘 받아 들였는지 아니면 그들이 화가 났는지 어떻게 그의 첫 번째 편지를 받아들였는지 알지 못해서 궁금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마침내 디도는 바울을 만나 그의 첫 번째 편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응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번째 편지를 빌립보에서 고린도 교회에 썼습니다. 그곳에서 이러한 바울을 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알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의 두 번째 편지 전체를 통해 바울은 그의 사도직을 증명하여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의 남쪽 지역에 있는 고린도 근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좃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전형적인 바울의 특유의 문안 인사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모든 바울 서신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은혜와 평강의 순서를 지적했습니다. 한 번도 바울은 평강과 은혜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순서입니다. 은혜 다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좃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의 시작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의 편지의 시작인, 에베소서 1장 3절에 똑같은 구절로 시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막 아주 비참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숨은 도저히 구조될 가망이 없었고, 이제 그는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매우 힘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나 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읽을 때, 우리는 그를 일종의 최고의 성자로 생각하고, 그는 높은 건물을 한번에 뛰어넘을 수 있고, 날아가는 총알이나 달리는 기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최대의 성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쉽게 낙담하고, 쉽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주께서 바울 곁에 계시어 그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아마도 그때가 바울의 삶 가운데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개종한 초창기부터, 그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나누는 것이 그의 꿈이요, 소망이요, 열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와 함께 다녔던 학교 동료들, 즉 가말리엘의 가르침 아래 그와 함께 한반에 앉아있던 다른 바리새인들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그들을 압니다! 나는 그들의 생태를 압니다. 만일 나에게 기회만 주신다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울에게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므로 그곳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 나는 그들의 입장을 안다고 하며 논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그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안토니아 요새의 영문 계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나누기 시작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으며, 너희들의 마음속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압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았고, 너희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압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학교를 다녔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이 종파를 다 몰아낼 것이라 생각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넣으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던 것을 대제사장이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 주위를 비추기에 땅에 엎드려져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증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에, 주께서 그를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실 것을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이란 말을 한 그 순간에, 마치 휘발유에 불을 붙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모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중에 흠을 던지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옷을 찢으며, 안토니아 요새의 영문 계단을 향하여 돌진하며, 그를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호위병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서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 갔습니다. 바울의 일생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주님! 나는 확실히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들을 설득시키는 대신에 바울은 엄청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감옥에 앉아있었을 때는 참으로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기회는 왔었지만, 그것은 완전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께서 감옥에 오셔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용기를 내라. 네가 이곳에서 나를 증거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너는 로마로 가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아, 거기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곁에 서서 계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주께서 위로의 말로 위로하시기 위해 거기 계셨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그들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해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험악한 폭풍으로 그들은 몹시 들까불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뜻을 잃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그저 바람이 배를 모는대로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용기를 내라.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항해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이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비록 배는 파괴되었지만 한 생명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간에 곁에 서서 계시며 위로로 격려해 주시는 그분을,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험악한 곳과, 어두운 밤들과, 매우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하고 있는 당신에게 주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당신 곁에 서서 당신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며, 당신을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넘치도록 받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모든 고난과 이러한 모든 환난을 겪을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이러한 모든 것을 통과하도록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어려움과 낙심에 대해서 알며, 돌이킬 가망이 전혀 없고,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느낌에 대해서도 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러한 어두운 밤들과 어렵고 힘든 경험들을 통과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으로 인해, 나는 내가 받은 위로로 이제 나는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6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यो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는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다른 말로하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며, 또 내가 너희들을 다룰 때, 내가 이러한 일들을 겪은 것으로 인해 너희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너희들을 도우며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는 주님의 임재와 위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함인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모든 경험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

나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나의 아버지와 남동생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남동생의 개인 사설 비행기였는데 추락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두 사람을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비행기 추락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건들을 읽을 때마다 그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공감하게 됩니다. 나는 그러한 것들을 겪었고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경험했던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는가를 알 때, 이러한 것들을 겪고 있는 자들을 더 잘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면 그러한 것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을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것들을 겪었기에 나는 이해할 수 있고 함께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어두운 시간들 가운데 있었을 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함이었었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더 잘 이해하며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받은 것도 너희를 위함이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위로 받은 것도 너희를 위함이니, 이는 내가 좀 더 효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힘을 너희에게 주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소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며, 너희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것들과 같은 경험들을 내가 겪었을 때 나에게 주셨던 그 위로를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었었습니다.

바울은 **7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아라.**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지 모르나, 우리가 큰 소망을 갖는 것은 너희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은 아마 사도행전 19장에서 있는 사건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와 인근 지역에서의 바울의 사역의 대 성공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도행전 19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왔고, 이교도의 신앙에서 진리되시고 살아계신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술의 술책에 관한 책들과 그들의 점성술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불태우는 큰 불꽃 축제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서 수 천 달러 상당의 책들과 두루마리를 불에 태웠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인들의 여신인 다이아나의 작은 형상을 만드는 기능공들에게 매우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은세공인 데메드리오는 비슷한 영업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다이아나 여신상을 위해서 만든 작은 은 장신구의 판매로 우리들이 부자가 된 것을 아노라.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것들은 진짜 신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더 이상 사지 않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거리를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큰 경기장으로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의 하나인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시간 동안이나 하더라. 바울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였는데 그의 친구들이 만일 바울이 들어가면 데메드리오와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바울을 덮쳐 찢어 죽일 것임을 확실히 알았으므로 바울을 못들어 가도록 강제로 말렸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명에 위협을 가져왔으므로 그 즉시 오순절까지 머물지 않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그들에게 닥친 환난에 대해서 말하기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이것은 우리의 수용과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은 정말 이것이 그의 사역에 끝이며 그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살아서 그곳을 나갈 가능성이 없고 다 죽었다고 여겼습니다.

9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즉 그들은 바울을 죽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나의 능력을 벗어난 절망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심은 우리로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그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경우 극단까지 가야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옛 말에, 인간의 난국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벼랑 끝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맡으실 기회를 가지게 되어 우리가 우리자신을 위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자신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점까지 오게 된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입니다.

10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나는 사망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또 건지시리라.** 이 사형 선고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구해내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건짐을 받고 있고,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로부터 나를 구해내셨으며 또 지금 구해내고 계시니,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구해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11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노라 그것은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너희들의 기도는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중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12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의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것이 우리의 위안이요, 기쁨이라. 나는 복잡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이 진실하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편지하기를, 나는 너희에게로 갈 계획이고, 마게도니아에 간 후에 다시 돌아와 어쩌면 너희와 겨울을 함께 보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바울은 오지 않았잖느냐. 바울은 두 얼굴을 가진 자로다. 그가 “예”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예”를 의미하지 않고, 그가 “아니오” 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아니오”를 의미하지 않는도다. 그는 연약하여, 주저하고, 진실되지 못하며, 그는 너희들에게 정직하지 못하다고 소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큰 소동이 일어나므로 인하여 그가 계획했던 것같이 그들에게 갈 수가 없었음으로 이러한 비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계획을 변경했어야 했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불가피한 변경을 이용하여 그를 성실치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기쁨과 위안은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3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직선적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교묘하게 위장하거나 비밀스러운 것으로

너희에게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는 어떤 숨은 의미도 없고,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어떤 숨겨진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항상 전화를 걸어서, 어제 당신이 좋은 아침이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로 무슨 뜻이냐고 묻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좋은 아침입니다!

결코 다른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작은 애매한 말들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만큼 영리하지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뜻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말하는 그대로 의미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읽는 것이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나는 너희가 이것을 알 것이라고 믿노라. 여기에 다른 숨은 뜻은 없노라.

14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15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이것이 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썼을 때 정말로 그렇게 할 계획이었고 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절대로 내가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사실 바울은 그 겨울을 그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지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고린도에서 나는 수리아로 배타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17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것이 경솔하게 한 것이었겠느냐? 바울이 경솔하다고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는 그저 말만 할뿐이며, 실제로 그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경솔하게 말만한다고 했습니다.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좇아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말하는 이들은 바울의 사역과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미치는 그의 영향력을 파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를 손상시킴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향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도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거기 고린도에서 이러한 일을 바울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18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19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것은 ‘예’라고도 하고 ‘아니오’라고도 하는 이중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동시에 ‘예’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노라.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예수님은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20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나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였고, 또 이중으로 말하지도 않았노라. 나는 동시에 ‘예’와 ‘아니오’라고 말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비난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그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1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의 사역을 확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기름 부으신 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대하여 전화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번 주에 여자에게 안수를 주는 것에 대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전화를 건 사람에게, 우리는 아무도 사역자로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을 사역자로 임명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역자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손을 얹고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임명하노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수 년 전 어떤 교회에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안수한 것만큼이나 나쁜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역자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당신을 목사로 임명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으로 당신을 목사로 임명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 임명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사로 임명 하셨다면, 당신은 사람들의 확증이나 안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임장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역자로 임명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승인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1:13-14절)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는 어떻게 그들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 인치심은 소유주가 도장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인치심으로서, 소유주가 도장 찍는 것인데, 그것은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시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보증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속하시고 보증금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보증금인 성령을 주셨고, 그것은 거래를 끝내시겠다는 주님의 의도를 나타냅니다. 주님은 당신을 그저 걸려있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거래를 완료하실 것입니다. 구속의 일을 완성하시리라는 주님의 의도를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당신을 인치셨습니다. 당신에게 소유주의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주께서 값 주고 사신 그의 소유를 구속하실 때까지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생각과 개념을 여기에 반복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단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23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부르노라. 로마서에서 (로마서 1:9절)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밤낮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그의 증인으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도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을 삼나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상했었노라. 내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다 뒤집어 놓으려고 했었노라. 그래서 이 큰 대결에서 너희를 아끼려는 것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로다.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었습니다. **24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어떤 권위나 너희를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너희가 바울 안에 선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 안에 섰음이라. 나는 단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의 삶의 기쁨을 돕는 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처음 일곱 장에서 바울은 이 모든 거짓 고발들에 대해서 그 자신을 변호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진실된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을 다룰 것입니다.

바울은 양 무리를 주관하는 자로 그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인, 총명한 기쁨을 가지도록 너희들을 돕기 위하여 있습니다.

아버지!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들 그리고 개인적인 실패와 고통의 때에 우리가 받았던 위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그곳에 계셔서 위로해 주셨고 절망과 낙담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흙더미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발을 바위 위에 세우셨고, 우리의 가는 길을 확정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겪은 고통과 시련들이 삶에 시련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이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겪었으므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주님!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진리와, 그리고 당신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신실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